

■ 2017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자 과정 연구생 선발 심의 총평

- 사업유형 : 2017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자 과정(aPD)
- 심의일시 및 장소
 - (사전검토) 2017.4.13(목) ~ 4.17(월)(5일간) / 재택심의
 - (1차 서류심의) 2017.4.18(화) 15:00~17:00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전용공간
 - (2차 인터뷰심의) 2017.4.25(화) 14:00~18:00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전용공간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성욱, 최진한, 한승원, 홍보라

1. 지원심의 과정

- 2017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자과정(aPD) 공모에는 총 46명(창작기획 26명, 프로젝트기획 20명)이 지원신청하였으며 지원심의는 1차 서류심의, 2차 인터뷰심의로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 4인으로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총 46건의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의책자로 제작 및 사전발송하여 개별 검토를 진행하였다.
- 4월 18일(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전용공간에서 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류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서류를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총28명을 2차 인터뷰심의 대상자로 결정하였다.
- 2차 인터뷰심의를 대상자 2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공지된 심의기준(기획역량, 발전가능성, 아카데미 과정과의 부합성)에 의거하여 총 18명을 2017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자과정(aPD) 연구생으로 최종 선발하였다.

2. 지원심의 총평

<1차 서류심의 총평>

2017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자과정(aPD) 연구생 선발 공모에 지원한 신청자들은 창작기획분야에 26명, 프로젝트기획분야에 20명이 지원하여 총 46명이었다. 그 중 지원신청서(필수서류)미제출 및 중복지원 건을 제외하고 총 44건을 대상으로 서류심의를 진행하였다.

창작기획분야와 프로젝트기획분야 모두 공통으로 지원신청자들 중 80% 이상이 단체의 대표자거나 소속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과 대다수가 기획이 아닌 작품창작을 주로 하는 창작자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였다. 때문인지 기반 장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확장하여 다양한 분야와 소재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세가 돋보였다. 하지만 개인의 작품 창작(발표)에 가까운 지원내용이 많은 것은 다소 아쉬웠다.

심의회는 공지된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신청자의 기획역량과 발전가능성, 아카데미과정과의 부합성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기획역량의 경우, 창작기획분야는 독창성과 실현가능성을 중점으로 저작권 등 관련 문제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프로젝트기획 분야는 현실성과 (대중)수용성, 실행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기존 공공프로젝트와의 중복성도 함께 검토하였다.

발전가능성과 아카데미 과정과의 부합성은 분야 공통기준으로 심의회를 진행하였다. 이는 본 아카데미 사업이 기존의 창·제작지원사업과는 달리 선발된 연구생들이 약 1년간 만남과 교류를 지속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기존의 아이디어를 발전·구체화 시켜나가는 연구 과정이 포함된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었다.

위와 같이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서류심의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지원신청자의 기획 의도가 불분명하고 결과물의 형태가 모호한 계획서가 많았다. 기획자가 되기 위해 목표하는 장르나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자신만의 기획으로 풀어 나갈 방향과 구체적 계획 없이 막연한 ‘바람’수준의 기획안이 많아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이디어의 발화가능성과 그에 따라 제시한 역량 등을 면밀하게 살펴 28명의 인터뷰 심의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지원신청자가 당초 제시한 기획안 상의 불명확함과 모호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터뷰심의 대상자들에게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을 선택사항으로 제안하였다.

기획의 경험이 없는 신청자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방향성과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야 할 것이며, 기존에 기획 직업에 관여했던 신청자는 새로운 기획의 창의적 내용과 필요성,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구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던 지원신청서(기획안)상의 모호함과 불명확함, 본 아카데미 과정과의 부합성 등을 2차 인터뷰심의를 통해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한다.

2017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자과정(aPD) 연구생 선발 지원심의위원 일동

<2차 인터뷰심의 총평>

2차 인터뷰심의회에서는 지원신청자들의 열정과 지원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으며, 모두가 다양한 방면에서 ‘기획자’의 역할, 기획이라는 행위와 업무 등에 대해 누구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그러나 지원신청자 중 대다수가 ‘기획’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고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고민 없이 막연하게 하고 싶은 것, 해보면 좋을 것 등을 제안한 수준에 그친 점은 다소 아쉬웠다.

지원자들은 두 가지 성향을 보였다. 한 가지는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확장하려는 지원자와 자신에게 부족한 기획적 역량을 강화해보겠다는 지원자이다. 자기 확신이 강한 지원자 중 일부는 새로운 기획적 역량 혹은 참신한 활동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못해 그 기대효과가 낮은 경우가 종종 있었고, 기획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지원자 중 다수는 본인이 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용어의 혼동 등 스스로의 길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불명확하고 모호한 점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본 아카데미 연구과정이 장기간의 그룹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함께 배우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성장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지원사업임을 고려하여 기획자로서 열린 자세와 수용성이 엿보이며, 배움과 참여의 의지가 강한 지원자들을 우선으로 선발하였다.

또한 기획은 ‘현실성(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기획아이디어를 성장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지원자들을 선발하고자 하였다.

2017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자과정(aPD) 연구생 선발 지원심의위원 일동